

광주·전남 '순조로운 출발'



각각 은 2·동 1개 획득...메달 레이스 시동

역도 원정식(원주고) 대회 첫 3관왕 영예

광주와 전남이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첫날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각각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내며 본격적인 메달레이스 준비를 마쳤다.

광주의 김성효(정광고 3년)는 대회 첫날 10일 역도 남고부 56kg 용상과 함께에서 충북체고 김영준에게 금메달을 뺏겨 아쉽게 은메달 2개에 머물렀다. 신기안(광주체고 1년)은 배달권 밖으로 밀렸다.

조선대는 순천 팔마테니스장에서 열린 테니스 여자 단체전에서 경북 안동대를 2-0으로 제압하고 2회전에 올랐다.

하지만 남대부 호남대 축구와 테니스 여고 살례시오고, 남대부 전남대는 탈락해 아쉬움을 남겼다.

전남은 기대했던 사이클에서 메달이 나오지 않아 아쉬움이 커었으나 임민섭(여수중부 고 2년)이 나주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에서 열린 1,000m제외플러스 포인트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어 체면을 살렸다.

단체전에서는 기록경기의 부진을 만회하는 신전을 펼쳤다.

광양체칠고는 광양 축구전용 2구장에서 열린 남고부 예산에서 서울 연남고를 2-0으로 꺾었고, 남대부 초당대도 광주 호남대를 2-1로 제압하고 2회전에 올랐다. 순천청암고는 테니스 여고부 경기에서 광주 살례시 오고를 3-0으로 제압하고 역시 2회전에 올랐다.

이에 앞서 56kg급 김영준(충북체고)은 인상과 함께에서 2관왕에 올라 이번 대회 첫 관왕으로 이름을 올렸다.

/여수=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0일 광양시 환경사업소 축구장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대학부 호남대(광주)-초당대(전남) 축구경기에서 초당대 이현필(가운데)과 호남대 강인준(오른쪽)이 공중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광양=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체전 이모저모

최민호·김재범 올림픽 유도 스타들 부상으로 기권 아쉬움

'얼짱' 장성호도 불참

○…전국체전에 출전하기로 돼 있던 유도 스타들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참하게 돼 팬들에게 아쉬움.

베이징올림픽 남자 60kg급에서 새로운 '한판승의 사나이'로 등극한 금메달리스트 최민호(28)와 81kg급에서 은메달을 따냈던 김재범(28·이상 한국마사회)이 모두 부상으로 기권.

또 유도 중랑급 간판으로 활약해온 '미남 스타' 장성호(30·수원시청)도 지난 5일 열린 2008세계단체선수권대회에서 입은 부상

으로 인해 현역 은퇴무대로 삼으려던 이번 체전에 불참.

'우생순' 주역들 큰 관심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만큼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며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다시 맛본 여자핸드볼 태극남자들이 이번 체전에서 다시 한번 코트를 뜨겁게 달굴 준비를 마쳐 관심.

특히 '우생순'의 주역인 김은아(무안 백제고 출신)는 고향무대에서 뛰게 돼 전국체전 스타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

핸드볼 경기는 무안 목포대 체육관에서

11일부터 6일 동안 일반부 남녀 경기가 펼쳐지는데 남자 14개, 여자 12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

대회 첫 금 사이클 정해랑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첫 금메달의 영광은 한국 사이클의 기대주 정해랑(20·한국수자원공사)이 차지.

정해랑은 10일 나주 사이클경기장에서 벌어진 대회 첫 날 사이클 남자일반부 15km 스크래치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목에 걸며 차세대 한국 사이클의 주역으로 부상.

화제 박스

■ 전남 출신 올림픽 스타들 한자리에



사진 왼쪽부터 안한봉, 이형근, 김원기, 김명순, 진원심, 조민선씨

■ 재외동포 뉴질랜드 선수단



뉴질랜드 동포선수단이 개회식에서 손을 흔들며 입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향서 체전...감회 새롭네요”

전국체전을 맞아 반가운 전남 출신 올림픽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주인공은 지난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안한봉(해남), 88년 서울올림픽 핸드볼 동메달 이형근(강진), 1984년 LA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김원기(합평), 88년 서울올림픽 핸드볼 김명순(여·무안), 88년 서울올림픽 여자하키 은메달 진원심(여·해남), 96년 애틀란타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조민선(여·유도)씨등이다.

이들은 이번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전국체육대회 기기수단으로 참가했다. 김원기 씨는 “이번 전국체육대회 기기수단으로 참가해 고향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특히 조민선씨는 이번 전국체육대회 유도 경기에 심판으로 참가해 후배들이 엄중하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포장천으로 나선다. 조민선씨는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을 따내며 기쁨을 나눴던게 생생하다”며 “아마추어 선수들의 최대찬치인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우수한 후배들이 많이 배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수=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엑스포 홍보 발벗고 나설터”

전남 전국체전에는 따뜻한 고국의 정을 그리워하는 재외동포 선수단도 대거 참가했다. 이번 체전에서는 모두 16개국의 재외동포 선수단이 인정넘치는 전남을 찾았다.

이들 재외동포 선수단은 체전 개막과 함께 훈훈한 고국의 정을 들풀 느끼고 있다. 특히 83명으로 구성된 재 뉴질랜드 선수단은 대주그룹의 후원으로 이번 체전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대주그룹은 뉴질랜드에 진출하면서 맷은 인연을 바탕으로 평상시 뉴질랜드 동포들의 각종 모임과 행사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대주그룹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재 뉴질랜드 선수단에 트레이닝 복을 지원했다.

재 뉴질랜드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축구, 테니스, 볼링, 골프, 타구, 스쿼시 등 6개 종목에 출전, 지난해와 같은 해외동포 선수단 종합 6위의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골프와 타구, 스쿼시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는 재 뉴질랜드 선수단은 경기와 함께 오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관련 각종 자료를 모아 돌아간 후 현지 홍보활동도 별일 계획이다.

오용근 재 뉴질랜드 선수단 단장은 “뉴질랜드에 돌아가면 여수 세계박람회를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최경주 환상의 이글 칩샷

선두와 2타 차 공동 11위

KPGA 신한동해오픈 2R

최경주는 10일 경기도 용인시 레이코사이드골프장 낭кос스(파72·7천544야드)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 제21회 신한동해오픈 2라운드에서 3타를 줄였다. 중간합계 5언더파 139타가 된 최경주는 공동 11위에 그쳤지만 선두그룹 5명에 2타차로 따라붙었다.

최경주는 9번홀(파5)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두번쨰 샷이 그린에 빗미쳤지만 54도 웨지지를 들고 이리저리 그린을 살피던 최경주는 15m짜리 칩샷을 훌어꽂아넣었다.

단숨에 2타를 줄인 최경주는 “볼이 놓인 자리가 좋아 버디는 당연하고 잘하면 이글도 가능하겠다 싶었다”면서 “경기가 안 풀려도 잘 참고 기다린 데를 봤다”고 말했다. 함께 경기를 펼친 배상문(22·캘리웨이), 강성훈(21·신한은행)도 “화가 날 법도 한데 너무나 차분하게 경기를 치러 과연 대선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감탄했다.

선두권은 공동선두 5명에 1타차 6위에 5명이 포진하는 등 일대 혼전이 벌어졌다. 상금랭킹 1위를 배상문에게 내준 김형성(28·삼화저축은행)과 신인왕 레이스 선두 강성훈, 그리고 박재범(27·우리골프), 전태현(41·캘리웨이), 박부원(44) 등이 7언더파 137타로 선두그룹에 나섰다.

최홍만 흠피에 “죽고 싶다”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28·사진)이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 종합격투기 K-1에서 은퇴할 뜻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최사 FEG는 밝혔다.

K-1 주최사 FEG·한국지사의 정연수 대표는 10

일 “최홍만이 비관적인 여론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만 은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면서 “최홍만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격한 표현을 한 것도 비판 여론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하고 하소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홍만은 이날 오전 미니홈피 싸이월드를 통해 “죽고 싶다” “누가 내 마음을 알까?” “조용히 떠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토로했다.

한편 최홍만은 자신의 홈페이지 글이 파장을 일으키자 처음 올린 글을 삭제하고 “팬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악플은 이제 그만”이라는 내용으로 바꿨다.



파문 일자 글 내리고 “죄송”

/연합뉴스